사계절 푸르른 양잔디와 함께…
HAMPYEONG DYNASTY COUNTRY CLUB
주중 비회원 예약 및 5인 PLAY 가능
전남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6-21
TEL.(061)320-7800 예약문의 (061)320-7700,7777

이영표 'AS 로마' 간다

토튼햄·AS로마 이적 합의
연봉·계약기간 등 협의 중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튼햄 핫스퍼에서 활약해 온 이영표(29)가 이탈리아 세리에A(1부리그) AS 로마로 전격 이적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표의 에이전트인 ㈜지쎈은 29일 "토튼햄과 AS 로마 두 구단이 이영표의 이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현재 AS 로마와 연봉,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을 조율하고 있다.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된다"고 밝혔다.

김동국 지쎈 대표는 29일 이탈리아로 출국해 AS 로마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영표는 이로써 2000년 페루자에 입단해 2002년 한일월드컵 직후까지 활약했던 안정환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두 번째로 이탈리아 세리에A 무대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리에A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와 함께 유럽 3대 빅 리그로 꼽힌다.

대한축구협회도 '이영표가 AS 로마로 이적할 것으로 보여 다음 달 2일 서울에서 열리는 2007 아시안컵 예선 이란과 경기에 대비한 대표팀 소집에 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를 에이전트로부터 받았다'고 전했다.

이영표는 아시안컵 예선을 앞두고 대표팀 합류를 위해 당초 30일 입국할 예정이었지만 AS 로마 이적이 성사되면 귀국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AS 로마는 지난 시즌 인터 밀란에 이어 세리에A에서 2위를 차지한 명문 클럽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한국과 16강전에서 퇴장당한 이탈리아 대표팀 간판 공격수 프란체스코 토티를 비롯해 시모네 페로타, 다니엘레 데로시 등 독일월드컵 우승국 이탈리아 대표팀 멤버 3명이 포함돼 있다.

이영표는 AS 로마에서 독일월드컵 아르헨티나 대표팀 멤버였던 레안드로 쿠프레와 주전 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쿠프레는 왼쪽 윙백과 중앙 수비수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AS로마 어떤 팀?

1927년 창단 伊 남부 명가
'세리에 A' 총 3차례 우승

이탈리아 프로축구 1부리그(세리에A)의 AS로마는 로마를 연고로 1927년 창단, 이탈리아 남부의 명가로 자리잡은 전통의 구단이다.

당시 알바, 포르티투도, 로만 등 로마의 3개 클럽을 통합해 창단됐으며 정식 명칭은 AS 로마 Spa다.

8만 여명을 수용하는 올림피코 스타디움을 지역 라이벌 라치오와 함께 홈 구장으로 쓰고 있다.

AS로마는 창단 2년 뒤인 1929-1930년 시즌 세리에A에 처음으로 승격된 뒤 1941-1942 시즌 리그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후 1982-1983, 2000-2001시즌 등 총 3차례 세리에A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이탈리아 FA컵(코파 이탈리아)에서는 1963-1964 시즌을 시작으로 7회 우승했고, 1990-1991 시즌에는 유럽축구연맹(UEFA)컵 준우승(1990~1991)을 차지했다.

1996-1997 시즌 리그 13위까지 떨어지는 등 침체에 빠졌지만 이후 대규모 투자로 다시 강호의 면모를 되찾아가고 있다. 지난 시즌에는 5위를 차지했으나 승부조작 스캔들로 유벤투스, AC밀란, 피오렌티나 등이 감점 조치를 받으며 인터 밀란에 이어 2위로 뛰어올라 2006-2007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베어벡 2기 '안·박' 제외
〈정환〉 〈주영〉

이란전 대표팀 25명 확정
차두리 수비수로 재승선

차두리(26.FSV 마인츠05)가 9개월여 만에 축구 국가대표팀에 재승선했고 안정환(30)과 박주영(21·FC 서울)은 제외됐다.

핌 베어벡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29일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 달 2일과 6일 서울과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07 아시안컵 예선 B조 3, 4차전 이란, 대만과 홈 경기에 나설 대표팀 명단(25명)을 발표했다.

베어벡 감독은 "부상자 발생 가능성과 선수들의 피로도 등을 감안해 엔트리(20명)보다 다섯 명 많은 25명을 선발했다. 이란전 엔트리는 경기 전날인 다음 달 1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독일월드컵 최종엔트리에 빠졌던 차두리는 아드보카트호 시절인 지난 해 11월 세르비아-몬테네그로와 평가전 이후 9개월여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소속 팀에서 오른쪽 윙백으로 변신한 차두리는 수비수 요원으로 선발됐다.

유럽 진출을 모색해온 안정환은 현재 소속 클럽이 없어 훈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베어벡 감독은 설명했다.

베어벡 감독은 박주영을 뺀 이유에 대해 "지난 해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던 박주영이 프로 2년 차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현 시점에서는 정조국, 최성국이 박주영보다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설기현(레딩), 이영표(토튼햄), 이호, 김동진(이상 제니트)과 차두리 등 유럽파 6명과 J-리거 조재진(시미즈), 김진규(이와타) 등 해외파 8명이 선발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 AS 로마로 이적이 임박한 이영표는 일단 소집 명단에는 포함됐다.

부상으로 지난 16일 대만 원정에 동행하지 않았던 골키퍼 이운재(수원)도 베어벡호에 승선했다.

새 얼굴로는 수비수 조성환(포항)과 공격수 이종민(울산)이 뽑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허정무 감독 개인통산 100승 도전

전기리그 우승팀 성남 일화가 후기리그 초반에도 2연승과 6득점, 무실점으로 신바람을 내고 있는 가운데 프로축구 삼성 하우젠 K-리그 2006 주중 3라운드 경기가 30일 저녁 광양을 비롯 전국 7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성남과 울산은 분당 탄천종합운동장에서 맞대결을 벌인다. 양팀 공격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천수(울산)와 김두현(성남)의 매치업이 눈길을 끈다.

둘 다 세트플레이에서 전담 키커로 나서는데 지난 주말 프리킥으로 골맛을 본 이천수의 발끝이 좀 더 매서워 보인다. 김두현은 득점 선두(10골) 우성용을 2선에서 지원하고 새 용병 네아가, 이따마르에게 '실탄'을 배달한다.

허정무 전남 드래곤즈 감독은 광주 상무와 광양 홈 경기에서 개인 통산 100승에 도전한다. 통산 99승의 허 감독은 앞선 두 경기에서 1무1패로 허탕을 쳤다. 광주는 부상을 털고 돌아온 정경호가 득점포에 시동을 걸었다.

컵대회 우승으로 기세를 살린 FC 서울은 포항 스틸러스를 상암벌로 불러들인다.

부산과 대구는 올 시즌 두 차례 만나 모두 14골을 주고받는 공방을 펼쳤다. 이번 경기에서도 화려한 골 잔치가 펼쳐질 걸로 기대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같은 조건이면 미국 가겠다"

■ 日 '스포츠닛폰' 보도

"요미우리 잔류조건 상향 검토"
美 애리조나 "이승엽 강하다"

이승엽(30·요미우리 자이언츠)이 같은 조건이면 올 시즌 후 일본을 떠나 미국프로야구에 진출할 것이라고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닛폰'이 29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요미우리 그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승엽은 요미우리와 메이저리그의 조건이 같을 경우 미국행을 택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며 요미우리 구단도 이런 상황을 고려, 잔류 조건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내년 시즌 꼭 우승하라'는 구단주의 엄명을 받은 하라 다쓰노리 요미우리 감독은 '이승엽이 꼭 필요하다'며 무조건 잔류를 요청하고 있는 형국.

이승엽은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고 모든 것은 시즌 후에 밝히겠다"며 손사래를 치고 있으나 요미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전격적으로 미국행을 선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이 신문은 3년 전과 달리 미국 야구가 이승엽에 대해 호의적인 평가로 돌아섰기에 요미우리가 줄다리기 끝에 미국 측에 밀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올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홈런(5개) 타점(10개) 1위에 오른 뒤 요미우리에서도 센트럴리그 홈런(37개) 1위, 타율(0.320) 2위를 달리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메이저리그 스카우트가 열띤 영입 경쟁을 펼치고 있다는 것.

지난 6일에는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가, 13일과 15일에는 각각 피츠버그와 시카고 컵스가 차례로 스카우트를 보내 이승엽을 지켜봤다. 이 중 애리조나 국제담당 스카우트는 "이승엽은 강하고 엄청나다"며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 신문은 미국 야구에 정통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승엽이 연봉 200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산케이 스포츠'가 요미우리가 이승엽을 잡기 위해 3년간 10억엔(82억원)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도한 이후 일본 언론의 이승엽에 대한 평가는 200만 달러 선에 멈춰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신수 '호수비'

안타성 타구 잡아 병살
방망이는 2타수 무안타

전날 결장했던 추신수(24·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수비에서는 활약했지만 안타를 때리지는 못했다.

추신수는 29일(한국시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제이콥스필드에서 벌어진 미국프로야구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홈경기에서 6번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출장해 2타수 무안타 2볼넷을 기록했다.

추신수는 4회말 두번째 타석에서 2-2로 맞선 무사 2루 역전 기회에서 유격수 직선타로 아웃당해 아쉬움을 남겼다.

7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주자 없는 1사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2회 첫 타석에서 볼넷을 얻은 뒤 5회 세번째 타석 1사 2,3루에서는 고의사구로 출루했다.

추신수는 1회초 러스 애덤스의 안타성 타구를 잡아 병살타를 이끌어내는 등 호수비를 펼쳤다.

클리블랜드는 5회 그래디 사이즈모어와 제이슨 마이클스, 라이언 가코가 각각 2루타를 치며 3점을 뽑았고 6회 사이즈모어가 1점 홈런을 치는 등 활약을 펼쳐 6-4로 승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정영일(LA에인절스·진흥고 출신) 내달 14일 교육리그

메이저리거 꿈을 안고 미국프로야구 LA에인절스에 입단한 '초고교급 투수' 정영일(18·광주 진흥고)이 다음 달 14일부터 4주 일정의 교육리그에 참가한다.

정영일은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열리는 에인절스 교육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9월 11일 가족과 함께 출국한다고 29일 밝혔다.

모교인 진흥고에서 매일 강한 웨이트트레이닝과 100개 안팎의 실전 피칭을 소화하며 몸을 만들고 있는 정영일이 에인절스를 이끌 유망주들과 경쟁하며 자신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무대인 셈이다.

특히 정영일은 한인 야구 선수 최초로 메이저리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5번으로 에인절스에 지명된 포수 최 현(18)과 첫 만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정영일은 "낯선 미국 땅에서 적응하려면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통하는 최 현 선수가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 놓인다. 둘 다 열심히 한다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빅리거 배터리로도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약금 135만달러에 계약한 최현은 지난 6월 중순 일찌감치 템피로 이동, 신인 드래프트 1, 2년차 선수들이 뛰는 리그인 '루키볼'에서 뛰고 있다. 정영일은 교육리그를 마치고 10월 15일께 귀국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